

‘빈손’ 민주당... 장관 인사청문회 뭐 했을까

14개 부처 내정자 무사 통과 확실 ‘송곳검증’ 무색

김병관 국방도 임명 강행 태세... 결국 낙마자 ‘0’명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낙제점을 얻으면서 체면이 많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13일로

예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 1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 상임위원도 모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이다. 여기에 현 장관 내정자에도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박근혜 내각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단 한 명도 낙마시키지 못한 채 기대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로 청문회 국면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제1야당인 민주당의 첫 국회 데뷔 무대인데다 대권 패배의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결국 정치적 존제감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장기 표류가 결국 민주당에 악재가 됐다. 이는 분석이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의 장기 표류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민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조도 따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 핵 위기 고조에 따른 안보 불안도 민주당으로서 강공으로만 밀어붙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내부 혁신과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보인 것도 당의 동력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이슈와 타겟이 흐려지면서 전체적인 대외 전략이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이슈에 가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낙마를 이끌었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차기 정국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안철수 대항마 찾기 골몰

노원병 내출면 박대통령 정치적 부담 작용

허준영·이준석·홍정욱 등 ‘필승카드’ 거론

새누리당이 4·24 서울 노원병 보궐 선거와 관련,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항마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교수가 노원병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새누리당의 정국 주도권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새 정부의 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대선 이후의 주요 경쟁자 중 한 명이었던 안 전 교수의 재부상은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2일 “안 전 교수의 등장이 민주당통합당을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접근은 안 된다”며 “정명승 부를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해 4·11총선에서 서울 지역 48석 중 16석만 확보

할 정도로 부진했던 상황에서 이번 노원병 보선은 수도권에서의 재도약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안 전 교수를 꺾을 수 있는 ‘필승카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노원병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 ‘젊은 피’로 불리는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18대 노원병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전 의원 등이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 기간 당의 정치쇄신을 주도한 안대희 전 정치쇄신평위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14~16일 후보자 공모를 거쳐 현지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면접 등을 통해 노원병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직 부장판사

“김병관은 안된다”

장관임명 공개 반대 글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47·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군대의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감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고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던 2011년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들에게 “SNS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연행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행뉴스

현충원 간 안철수 “더 낮은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원병 바다출기와 정국 대응 ‘투트랙’ 행보할 듯

82일 만에 귀국한 안 전 교수는 12일 동작동 국립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섰다.

그는 방명록에 “더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기자들에게 “우선 주민들과 만나서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저를 알리는 일들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교수는 참배 이후, 측근들과 4월 재보선 준비 상황과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날 오후 노원구 상

계동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13일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첫 인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안 전 교수가 출마할 예정인 노원 병의 상황은 승리를 담담할 수 없는 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BC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노원병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다자구도 여론조사 결과 안 전 교수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안 전 교수는 35.4%,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29.5%, 민주당통합 당 동승 위원장은 13.2%,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이 노원병 공천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야권 후보단일화 요구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전 교수 측은 여야 보수와 진보의 진영 정치를 벗어나 안철수 식의 ‘새정치’를 바탕으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지역구 바닥을 다지며

재보선에 집중하는 한편, 중앙 무대에서 정국 대응에도 나서서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안 전 교수는 현충원 참배 직후,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양쪽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창의적 해결 방법을 만들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우선 대승적으로 한쪽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1년 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개정을 약속하는 조건부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박대통령, 김병관 임명 ‘시간벌기’

도덕성·자질 논란 등 부정적 여론 감안 ‘저울질’

정부조직법 악영향 우려 보류하는 쪽으로 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위기를 감안해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만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통합당의 강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내정자의 임명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등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임명 날짜를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류 변화에는 부정적 여론과 여론 내부의 ‘슬고르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내정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의 자체가 무산됐다.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 트 활동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휩싸이며 중도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울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내정자로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정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모든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지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원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지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최고용도로 적합
- 비야동 지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사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정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업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지동 대지 330㎡ 건물 73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 매대가 7억9천원 196천원, 용지 196천원

◆상가매매◆

- 신원동 철단2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대가 8억원 (보증금 5천만 원) 용지4억 원 이동통신점 임점예정
- 신원동 철단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원

분양

- 용두동 철단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m5544만원 매대가 2억6천만원
- 용두동 철단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원동철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매상구)
- 신원동철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관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매상구)

상가주택매매

- 신원동 하남2지구 1층점포, 2층 투쓰리룸3개, 3층복층인실 월수익550만원 87933천원
- 월전동 16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원 8692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간혹, 분당, 대평, 시흥, 상동)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제 낙찰사례 스테디
▶1인1물건 추천
▶주1회, 3개월 완성
▶수강료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중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익”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